

# Are You Ready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2022. 7. 12 (화)

**meritz** Strategy Daily

## 전략공감 2.0

### Strategy Idea

바이든 중동 순방 관전 포인트: 유가가 핵심일까?

### 오늘의 차트

홀로 좋은 중국 증시, 발 맞춘 외국인 본토ETF 구매 허용

### 칼럼의 재해석

넷플릭스, 구독자 수 회복 계획 아시아에서 시작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 Strategy Idea



▲ 글로벌 투자전략 - 선진국  
Analyst 황수욱  
02. 6454-4896  
soowook.hwang@meritz.co.kr

## 바이든 중동 순방 관전 포인트: 유가가 핵심일까?

- ✓ 7/13~16 바이든 중동 순방 예정. 미국의 위상 회복, 중동 관계 개선에 방점을 둘 것
- ✓ 사우디와 원유 관련 합의는 증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일반적인 수준일 가능성
- ✓ 미국의 목표를 위해 중동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에 주목: 방위 산업과 인프라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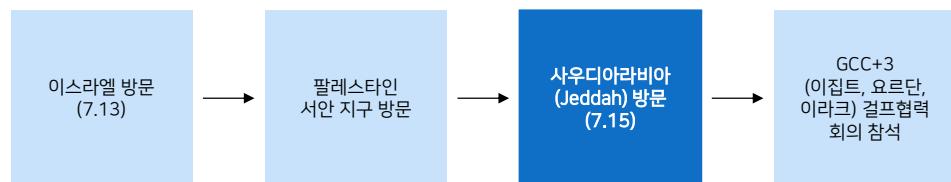
### 이번주 바이든 중동 순방. 사우디는 15일 방문 예정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주 13~16일에 걸쳐 중동 순방에 나선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사우디아라비아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7월 13일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사우디에는 7월 15일인 이번주 금요일에 방문한다.

원유 증산 합의 외에도 중요한  
포인트 점검 필요

시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 일정에서 원유 증산과 관련한 유의미한 합의를 도출해내고, 이에 따라 유가가 추세적으로 안정화되는 것을 가장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도 유가 안정이 중시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고, 고유가를 유발했던 공급측 문제 해결만이 유가 안정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다만 이번 전략공감 2.0에서는 사우디와 증산합의 이외에도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들에 대해 좀 더 조명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1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바이든 기고문에 드러난 중동 방문의 목적

7월 9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에 '나는 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는가(Why I'm Going to Saudi Arabia)'라는 기고문을 통해 중동 순방 일정에 대한 목적과 의지를 드러냈다. 기고문 서두에서는 중동 방문에 따른 미국의 이익을 강조하며 크게 세가지 목적을 열거하고 있다.

**첫째는 중동과 관계 개선이다.** 기고문의 가장 서두에서 바이든은 중동 지역의 수로(waterway)는 세계 무역과 미국이 의존하는 공급망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둘째는 에너지 안보다.** 중동의 에너지 자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전세계의 에너지 공급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셋째는 중동의 안정이다.** 외교와 협력을 통해 중동의 미군을 비롯한 미국 국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새로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관계 개선과 중동의 안정에 방점. 유가 안정 언급은 많지 않았음

기고문 전반 걸쳐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방문에서 미국과 중동의 동맹 확인, 중동 국가 사이의 관계 개선, 중동의 평화 유지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 의지를 드러냈고, 예멘 내전, 이란 핵합의 파기, 시리아 내전, 테러단체 활동 등 중동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것이다. 유가 안정에 대한 언급은 OPEC 국가들과 원유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중국/러시아 견제 의지 확인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 방문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 의도도 드러냈다. 기고문에서는 '(미국은) 러시아에 침략에 맞서 중국을 능가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서야 하며, 결과적으로 세계의 중요한 지역에서 더 큰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서술했다.

그림2 중동 방문을 약 일주일 앞두고 Washington Post에 게재된 바이든 대통령의 기고

## Opinion | Joe Biden: Why I'm going to Saudi Arabia

By Joe Biden

July 9, 2022 at 6:35 p.m. EDT

자료: The Washington Pos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원유 증산 합의가 유가 추세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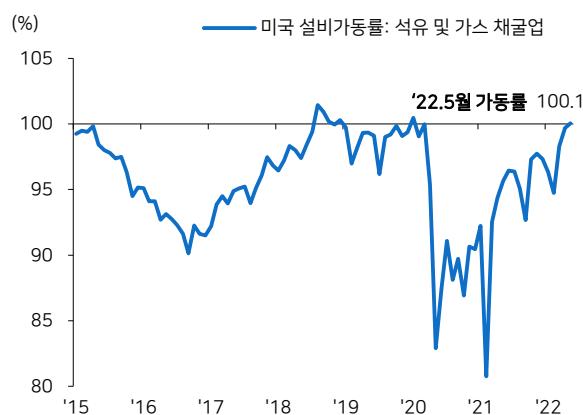
사우디의 실제 증산 여력이 제한적일 가능성

### 원유 관련 합의는 증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일 가능성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입장에서 원유 증산 합의가 시급하나,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사우디와 합의가 단기에 유가의 추세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견해다. 이번 회담 결과는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일반적인 수준의 합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국왕과 회담 시, 원유 증산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증산 규모 및 기간이 부재하며 유가 안정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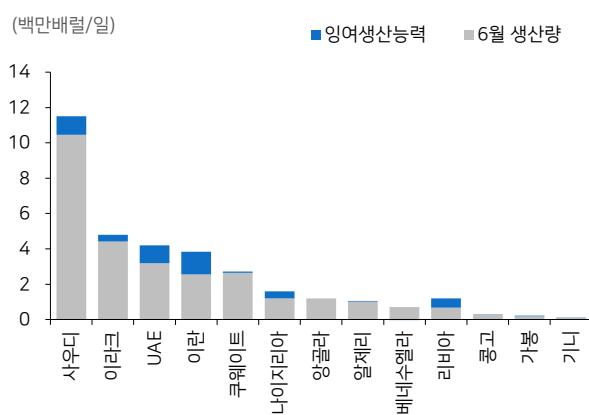
그 이유는 사우디의 증산 여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 때문이다. 6월 초 OPEC+ 회의에서 원유 증산량을 50% 확대하면서 증산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6월에 5월대비 생산 쿼터가 11.4만 b/d 늘었음에도 사우디 6월 산유량은 5월대비 2만 b/d 증가하는데 그쳤다(1,043만→1,045만). 7월 8일 로이터는 사우디 아람코의 추가 여력이 100만 b/d정도 되지만,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며, 향후 60~90일간 30~50만 b/d정도 추가적으로 공급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그림3 미국 시추시설 가동률 이미 100%, 중동 협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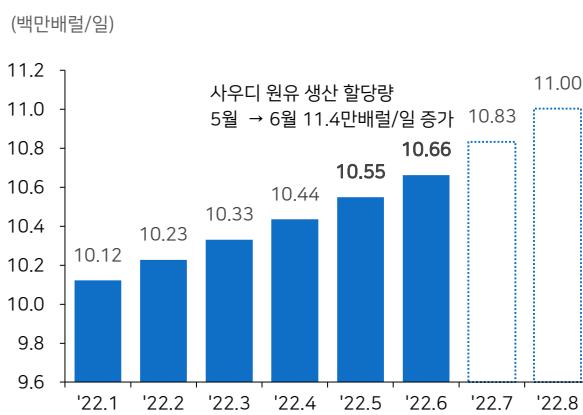
자료: Federal Reserv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OPEC 중 여력 있는 중동국가에 증산 합의 요구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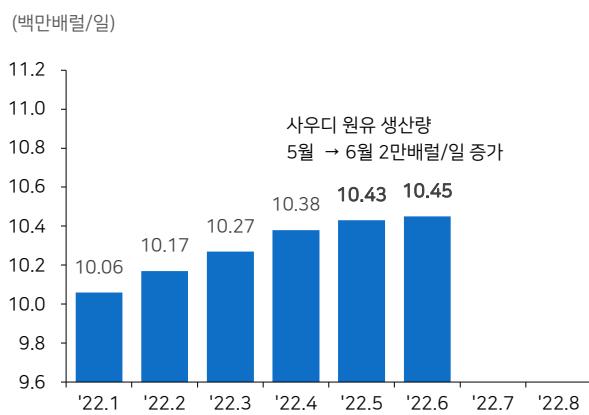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사우디 원유 생산 할당량은 계속 늘고 있지만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5, 6월 사우디 산유량 증가속도는 여기에 미치지 못함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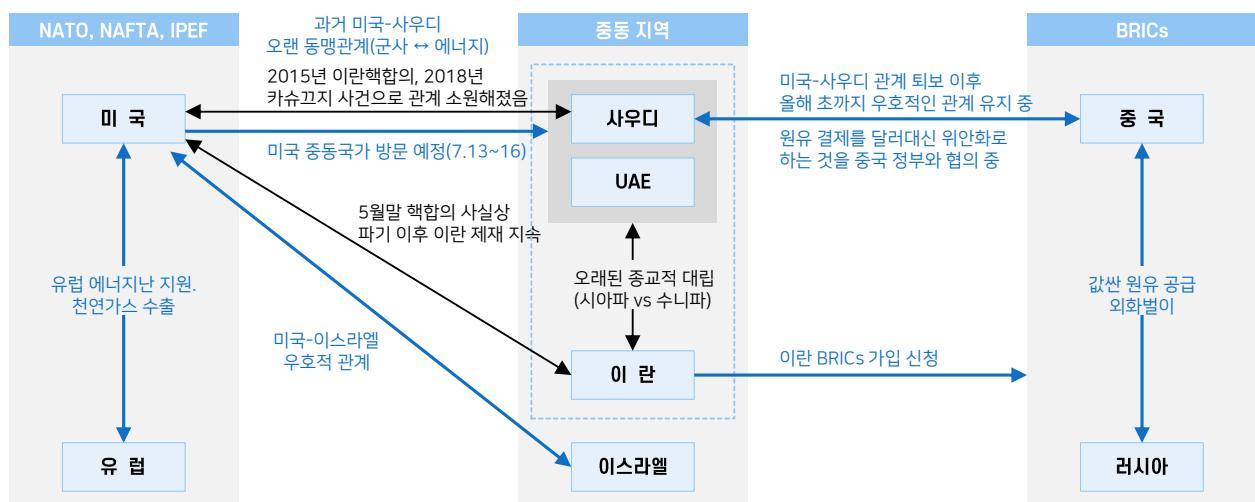
## 공급망을 둘러싼 미국의 중국 견제 의도

중동 방문의 핵심은 중동지역과 관계 회복을 통한 중국 견제

수에즈 운하와 홍해를 둘러싼 중동의 해상 교역로는 미국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필수적이다. 또한 육상, 해상 모두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간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일대일로를 추구하는 중국에게도 중요하다. 중국도 2019년부터 중동과 적극적으로 관계 진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다.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은 중국의 일대일로를 견제한다는 관점에서 더욱 중요한 지정학적 함의를 갖는다.

바이든이 중동 순방 일정에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미국의 셈법은 기존의 우방국이었던 이스라엘과 중동의 관계 회복을 토대로 1) 이스라엘을 통해 중동의 패권국인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를 회복하고, 2) 중동 내에서 중국 측 교역망으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는 이란을 압박할 수 있는 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중심으로 중동 내에서 미국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은 중국의 영향력 억제 및 일대일로 계획 저지와 연결되어있다.

그림7 사우디vs이란은 오랜 갈등 관계. 최근 중국 중동과 교류 활발. 이스라엘은 미국의 전통 우방이나 사우디와 아직 수교 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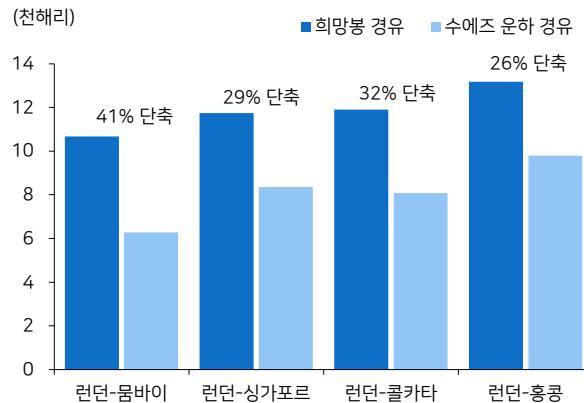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중국의 일대일로: 육상/해상 모두 중동을 지남



자료: Googl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클리퍼 항로에서 수에즈 운하로 단축되는 거리 비교



자료: Googl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미국이 중동 평화 유지를 근거로  
미국의 군사 원조 확대에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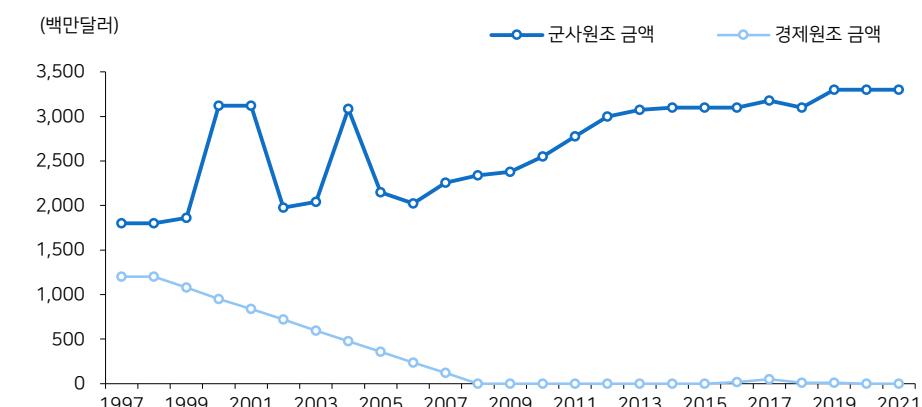
사우디가 post 석유시대 대비하는  
니즈에 맞춘 기술 제휴 제안

### 미국이 줄 수 있는 것에 초점: 방위 산업, 첨단 인프라

위와 같은 의도라면, 미국에게 중동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중동 국가들에게 새롭게 줄 수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첫째는 방위 산업이다. 미국은 이스라엘 방문시 이란에 맞서는 중동 안보를 명분으로 중동 국가들의 군사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예멘 내전이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 양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아직 이스라엘과 수료를 맺지 않은 사우디도 이란에 맞서는 군사 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다. 미국 의회는 6월 9일 이란 위협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과 아랍 9개국 간 방공망 통합을 추진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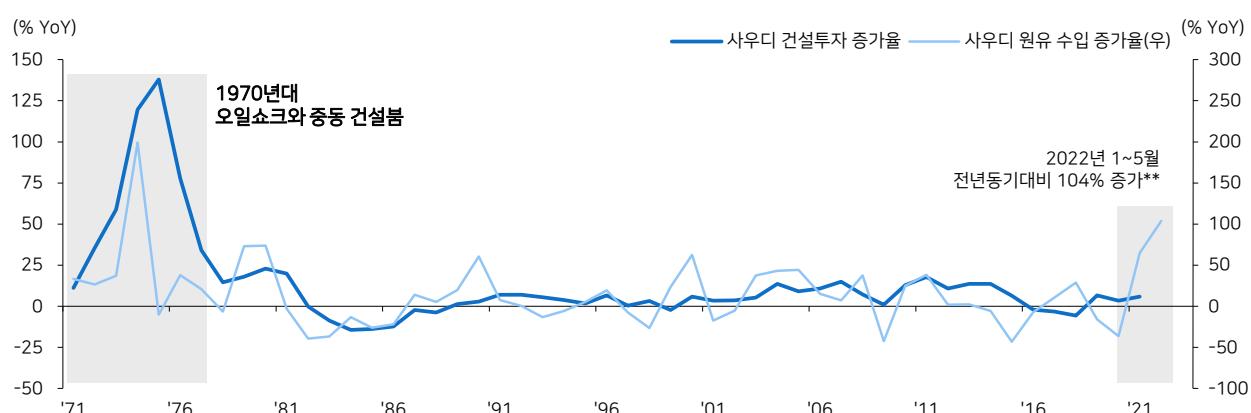
둘째는 첨단 인프라 분야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시 기간 시설, 청정에너지, 기술 제휴 및 생산기지 건설 계획(6월 16일자 Politico)에 대해 논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바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원유 수입 확대로 네옴시티 등 post석유시대를 대비하는 건설 등 인프라 투자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우디의 니즈와 일맥상통한다.

그림10 미국의 이스라엘 원조 규모: 2010년대 이후 거의 군사원조에 집중



자료: USAID, U.S. Overseas Loans and Grant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사우디 석유 수입과 건설투자: '70년대 사우디 원유 수입 증가는 건설 붐으로 이어짐. 올해도 사우디 원유 수입 크게 증가



\*주1: 사우디 원유 수입은 사우디 원유 생산량 x 연평균 WTI 가격으로 추산. 건설투자는 명목금액. \*\*주2: 2022년 원유수입 증가율은 1~5월 전년동기대비  
자료: 사우디 산업지원부, 사우디 통계청, MacroTren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유가하락 및 통화정책과 연결되어  
주가 추세 전환 기대하기 어려움

미국 공급망 내에 있는 국가들에  
게도 성공적인 순방 결과 중요

### 유가 추세 전환에는 의문, 합의 도출은 미국 공급망 국가들에게 중요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크게 두가지 시사점이 있다. 첫째, 바이든의 중동 순방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 중시의 반등 요인이 되긴 어렵다는 의견이다. 사우디 와의 표면적인 증산 합의는 도출해내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유가 수준을 유지할 발판은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우디 등 증산 여력이 크지 않아 보이기에 단기에 유의미한 증산 나타나기 어려운 환경이다. 시장에서 평가하는 러시아산 원유 공급 차질이 글로벌 원유 시장에 미치는 부족분은 약 300만 b/d다. 이번 합의로 부족분을 넘어서는 증산을 당장 이끌어내긴 어려워 보인다.

둘째, 이번 순방은 미국 공급망 유지 및 중국과의 패권 경쟁의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다. 따라서 미국의 성공적인 협상이 미국 공급망 내에 있는 국가들의 추가 성장 여력을 지지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최근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네옴시티와 관련한 인프라 공사 수주에 성공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미국 공급망 내의 국가가 관련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번 미국의 중동 순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 오늘의 차트

최병욱 연구원

## 홀로 좋은 중국 증시, 발 맞춘 외국인 본토ETF 구매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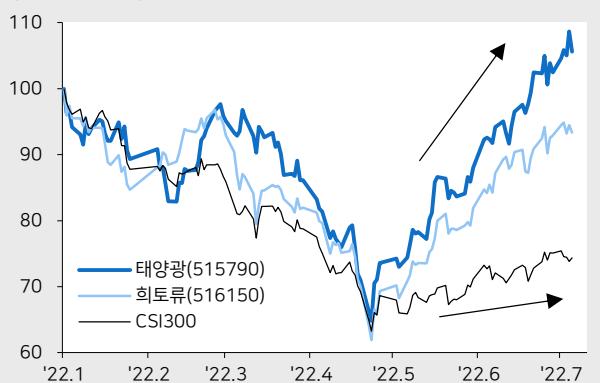
&lt;외국인 허용 본토ETF 순유입강도 상위&gt;

코드	이름	내용	AUM 7월 4일 (백만달러)	순유입강도 7월 4일 이후 (%)	수익률 연초 이후 (%)
512010	CSI300 HEALTHCARE	제약	14.9	0.6	-3.5
512690	PengHua CSI ALCOHOL	주류	14.3	0.5	-3.4
159995	CAMC SEMI-CNDCTR	반도체	30.4	0.4	1.7
159841	TH CSI ALL SHARE	은행	6.1	0.4	-3.3
515170	CAMC CSI FOOD-BEV	음식료	6.5	0.4	-3.0
512290	GUOTAI CSI BIO-MEDICINE	제약	5.9	0.4	-4.2
159801	GF SEMI-CNDCTOR	반도체	3.0	0.4	1.8
512710	FG CSI MLTR	방산	7.5	0.4	-1.4

주: 순유입강도 = (해당기간 순유입자금액/AUM\*100)

자료: Refinitiv, WIN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022.1.1=100) &lt;중국 태양광, 희토류 ETF 가격추이&gt;



## 중국본토 상장 ETF

## 외국인 직접구매 허용

글로벌 증시가 부진한 반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기록 중이다.(MSCI Index 기준 1개월 수익률, 글로벌 -5.4% vs 중국 0.0%). 이런 상황에서 본래 외국인 직접구매가 불가능했던 중국 본토 ETF 중 83개를 외국인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허용대상이 된 전반적인 ETF들의 종류 및 자금흐름현황, 수익률, 그리고 주목할 만한 ETF들을 살펴보자.

## 대표지수, 업종, 테마ETF

## 업종 및 대표지수에 자금 순유입

## 테마 순유출

이번에 허용된 ETF들은 대표지수ETF, 업종ETF, 테마ETF 세 가지로 분류된다. 반도체, 5G, 신재생에너지, 국방, 희토류, 농업, 바이오테크 등이 테마 ETF다. 7월 4일 이후 현재까지 반도체를 제외한 신재생, 희토류, 농업 등 테마 ETF들에서 전반적으로 자금이 순유출됐다. 반면 중국 전반 대표지수에 투자하는 ETF나, 경기 방어주 성격이 있는 제약, 음식료 업종ETF는 순유입 상위를 기록했다.

## 그간 투자 불가능했던 테마ETF

## 주목 필요

이들 중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간 투자하기 힘들었던 테마ETF들이다. 태양광 ETF 515790이 그 예다. KGRN 등 중국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투자하는 ETF는 있었으나, 태양광 집중 ETF는 처음 허용된 것이다. 중국 희토류에 투자하는 ETF 516150도 비슷하다. 두 ETF 모두 중국 점유율이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투자가 불가능했지만 금번 조치로 가능해졌다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 경기 회복 및 정책모멘텀  
추후 에너지안보 전략에 따른 수  
혜 기대 가능

중국의 경기 회복 정책 모멘텀이 기대되는 현 상황에서 이와 같은 중국 투자 저변 확대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탈세계화 기조 속에서 중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은 친환경 방향으로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따른 태양광, 희토류 등 산업의 수혜가 기대되며, 해당 산업 ETF들 중 기존 컨셉과 다른, 새롭게 투자 가능하게 된 ETF들은 차별화되는 투자포인트가 있다고 판단한다.

## 칼럼의 재해석

강하라 연구원

### 넷플릭스, 구독자 수 회복 계획 아시아에서 시작 (Bloomberg)

넷플릭스의 아시아태평양 사업개발 부사장 Tony Zameczkowski는 최근 인터뷰에서 구독자 수 회복을 위해 저소득 국가에서 낮은 ARPU(Average Revenue Per User)를 유지하고 결제수단을 다양화하는 계획을 아시아에서부터 시작할 계획을 발표했다.

넷플릭스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지역에서 한달에 약 3달러 수준인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온 모바일 요금제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신용카드가 보편적이지 않은 국가에서는 무선통신 사업자, 디지털 결제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결제 방식을 다양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사는 아시아를 시작으로 이와 같은 계획을 남미, 아프리카 등 지역에서도 확장하여 적용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 1분기 구독자 감소 이후 비용 축소, 광고 요금 도입하는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지난 1분기 처음으로 구독자 수가 감소하며 시장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20만명 감소분 중 러시아에서의 사업 중단 영향(70만명)을 제외하더라도 구독자 수 +50만명은 시장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이후 동사는 비용 축소를 위해서 지난 5월과 6월 정규직 직원 각각 150명, 300명을 정리해고 했다. 이는 전체 직원 규모의 약 4%에 해당되는 인원이다.

#### 올해 안에 광고 요금제 도입 예정

또한 넷플릭스는 그동안 광고 도입에 소극적이었지만, 1분기 컨퍼런스콜을 통해 소비자 반경 확대와 추가적 수입원을 위해 광고 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동사는 최근 구글과 광고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광고형 요금제는 올해 안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 2분기 구독자 193만명 감소했을 것으로 시장은 추정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상황은 쉽지 않아 보인다. 코로나 완화와 경쟁심화에 더불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 둔화 또한 넷플릭스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동사는 2분기 구독자 가이던스를 -200만명으로 제시했는데, 현재 컨센서스는 이와 유사한 -193만명 수준이다.

표1 Netflix 분기별 구독자 순증 컨센서스

(천명)	1Q22A	2Q22E	3Q22E	4Q22E	1Q23E
<b>북미</b>	-636	-1,093	145	616	290
<b>유럽, 중동, 아프리카</b>	-303	-760	834	2,136	764
<b>남미</b>	-351	-612	388	725	445
<b>아시아</b>	1,087	532	1,430	2,077	1,133
<b>Total</b>	<b>-203</b>	<b>-1,932</b>	<b>2,797</b>	<b>5,554</b>	<b>2,63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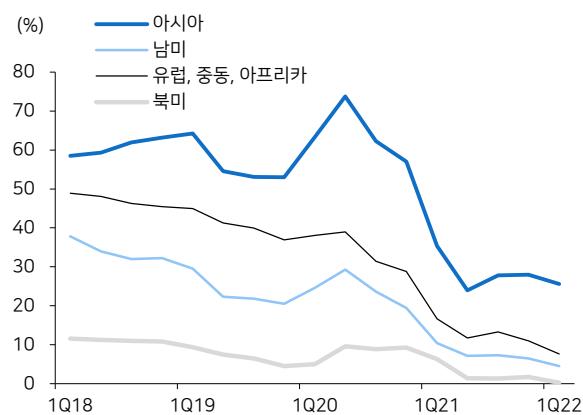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넷플릭스,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꾸준한 구독자 증가세 보이는 아시아 지역

1분기 중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구독자 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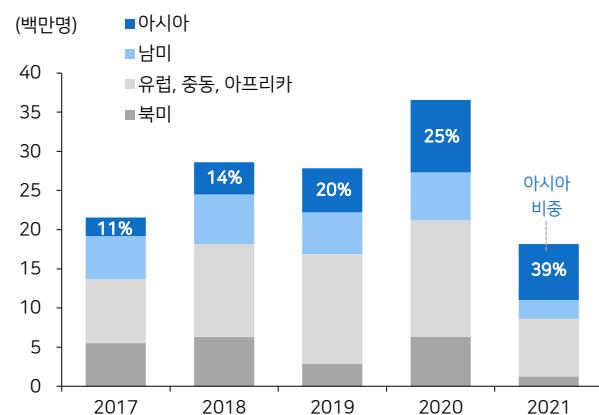
1분기 중 북미, 유럽·중동·아프리카, 남미 모든 지역에서 구독자 수가 감소한데 반해 아시아 지역은 유일하게 증가세가 유지되었다. 지역별 구독자 수 YoY 증가율을 보았을 때,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아시아 지역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연간 구독자 순증 기여율도 2017년 11%에서 2021년 39%로 상승했다.

그림1 지역별 구독자 수 증가율(% YoY)



자료: 넷플릭스,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Netflix 연간 구독자 지역별 순증



자료: 넷플릭스,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넷플릭스의 아시아 구독자 확보 계획

최근 아시아태평양 사업개발 부사장 Tony Zameczkowski는 인터뷰를 통해 구독자 수 회복 전략을 아시아 지역부터 시작할 계획임을 밝혔다.

### 1) 모바일 only 요금제 지속

넷플릭스는 그동안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모바일 only 요금제를 제공해 왔다. 해당 요금제는 모바일 기기에서만 스트리밍 가능, HD화질 불가능, 동시 재생 가능 기기 수 한대, 스크린 연결 불가 등 제한적 기능만을 제공하지만 한달 요금이 약 3달러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Tony는 ARPU 상승을 위해 모바일 only 요금제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계속 제공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표2 국가별 Netflix 월 구독료

(달러)	모바일 only	Basic	Standard	Premium
인도	1.88	2.52	6.31	8.84
필리핀	2.70	6.70	8.33	9.97
말레이시아	3.85	7.92	10.19	12.45
인도네시아	3.60	8.01	10.21	12.41
한국	x	7.31	10.39	13.08
미국	x	9.99	15.99	19.99

자료: 넷플릭스,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2) 다양한 결제 방식 도입

## 한국 콘텐츠 사업자에게 우호적 환경 조성될 것

동사는 또한 요금 결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신용카드가 보편적이지 않은 국가에서 무선 통신 사업자, 디지털 결제 사업자와 협력하여 다양한 결제 방식을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

현재 북미에서의 넷플릭스 침투율은 약 65%로 추정되며, 유럽에서도 이미 잠재적 구독자는 대부분 확보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지역에서 성장 여력이 높지 않은 지금, 동사가 가장 효과적으로 구독자 수를 늘릴 수 있는 곳은 아시아 임이 분명하다.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높은 만큼, 이와 같은 동사의 아시아 집중 확장 계획은 한국 콘텐츠 사업자에게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표3 최근 한달 국가별 Netflix Top 10 TV shows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1	Stranger Things	고스트 닉터	고스트 닉터	고스트 닉터
2	She	Stranger Things	Stranger Things	Stranger Things
3	The Umbrella Academy	2 Good 2 Be True	종이의 집	종이의 집
4	Manifest	종이의 집	Man vs Bee	환흔
5	Man vs Bee	The Umbrella Academy	환흔	The Umbrella Academy
6	고스트 닉터	환흔	The Umbrella Academy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7	종이의 집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우리들의 블루스
8	Money Heist	The World Between Us	Money Heist	Man vs Bee
9	지금 우리 학교는	Man vs Bee	SPY X FAMILY	Money Heist
10	오징어 게임	Money Heist	우리들의 블루스	미남당

자료: FlixPatrol,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원문: [Netflix's Plan to Fix Its Subscription Crisis Starts in Asia-Bloomberg](#)